



한국틴스타

2010년 6월

제22호

www.teenstar.or.kr



나를 깨워 준 틴스타

박규덕 신부 (서울대교구 전농동성당)

아침에 일어나고, 해야 할 일들을 게으름 피우며 처리한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누군가를 그리워 하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정리한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 있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때론 무관심해지고 때론 방치하고자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성직자에게는 성(性)이다. 괜히 꺼내 봐도 괴롭기만 하고 내놓고 이야기 하려니 웬지 멧쩍은 것. 마치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나를 감싸고 있고 내 삶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성.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무엇이든 너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왜곡되거나 비뚤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무관심 속에서 나를 깨워 준 것이 틴스타 교육이다. 자주 입에 올리고 누군가와 말을 하다 보니 이젠 조금은 더 친숙해진 단어가 바로 성이다.

그래서 성이란 단어를 잘 살펴보고 싶어졌다. 과연 성이란 무엇일까? 몸의 신학에서 들은 것처럼 충만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통로일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무시했던 내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내 나를 대로 생각한 성이란 단어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다.

性(성)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심장의 모습을 본 따서 만든 마음 心(심)과 조그마한 싹이 트는 모습을 본 따서 만든 날 生(생)자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다. 이런 까닭에 현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성은 육체적인 쾌락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의 삶이 끝났다고 여겼던 우리 조상들의 생각처럼 마음(생명)에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는 단어가 바로 성이다.

‘마음(심장)이 자그마한 잎사귀처럼 피어오르는 것.’ 그러기에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성이라면, 더 나아가 성이 지닌 생명(심장의 태동)에 대한 고귀함을 무시한다면 성은 초라해지고, 너무나 무의미해진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파괴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내 자신이 바라는 것은 성취되어야 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성에 대한 모습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이 나도 모르게 나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 난 승자이지만 패자이다. 난 성을 내 마음대로 상용했지만 그 성은 나의 또 다른 심장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성소 속의 또 한 가지 성소

이추성

(부산가톨릭신학대학교 4학년)



매주 월요일 부산 동구에 있는 우리들의 집에서 10주 과정으로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틴스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휴학기간에 우연찮은 기회로 틴스타 교사과정을 이수하고 1년이 지나서 첫 강의를 맞게 된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 그 당시 배웠던 것을 1년이 지난 지금 상당 부분 잊고 살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그램 특성상 다른 교사에게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와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우리들의 집의 마르가리타 수녀님과 함께 앞으로 수업을 하게 될 학생들이 살고 있는 ‘안창마을’에 가정방문을 갔다. 안창마을은 부산에 몇 안 되는 산동네 중 하나다. 빈민 지역이다

보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라 자신의 자식에게 가정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져 할 성교육은 훨씬 뒷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들께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와 앞으로 아이들이 받게 될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상당 부분 공감을 하셨다. 그들은 자식의 성교육에 대해 걱정은 되지만 신경을 쓸 겨를도 없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난처해 하였다. 나도 학생들이 혹시나 잘못된 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 되었다.

6월 22일부터 시작된 수업에는 총 5명의 남학생이 참가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단순한

‘성교육’ 이겠지 하는 생각에 그저 시간만 때우는 것처럼 수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나 또한 1년 전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하는 것이라 부족할 수밖에 없는 수업내용이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틴스타 수업은 전체 수업의 30% 정도만 이론 수업이고, 나머지 70%는 사례와 경험 위주의 나눔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스러운 나눔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내가 먼저 그날 주제에 대한 나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학생들은 내가 그 당시 하였던 고민이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같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경험도 털어 놓기 시작했다.

틴스타 프로그램은 신체적인 면의 성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 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의 적극적인 수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심리적, 정서적인 면 또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장 시기에 갖고 있는 고민은 물론 개인적인 고민들도 함께 나누고, 필요한 경우 개별면담도 실시 하였다.

10주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쯤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분명한 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성장하면서 겪게 될 상황들에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요즘 학생들이 고민을 털어 놓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맞벌이 하는 부모님과 학원에 가야만 하는 친구들과 함께 사는 학생들이 고민을 털어 놓을 장소와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사제로 살아갈 나에게 성소 속의 또 한 가지 성소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

김혜정 (틴스타 교사)

우리의 몸은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으로 되어 있고, 누구라도 성(sexuality)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성(sexuality)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성(sexuality)을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는 의미인 섹스(Sex)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단어를 한 번 보세요.

그 단어 안에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의미의 Sex도 들어있지만 그 외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두 서로 얼굴이 다르듯이 내 안에 있는 성(sexuality)은 나만의 모습과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 있는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도, 사랑하는 모습도 그리고 관계 맺는 모습도 모두 다양하고 독특하지요.

그렇다면 나의 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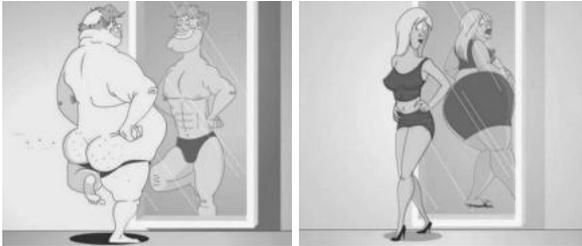
먼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까요?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사진이 있어요. 무엇이 다른지 보이나요?



아마 여러분은 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신체의 다른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신체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왜 이들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몸짓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운 걸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차이가 보이네요.



혹시 이 그림을 보는 여성들은 ‘맞아! 나도 그래.’ 라고 느끼지는 않나요?

그러면 거울 앞에 선 남성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나 심리적인 차이를 보여 주는 사례를 보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또는 친구와 더 많은 차이점을 찾아보아요.

	신체적인 차이	심리적인 차이	사회적인 차이
여성			
남성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차이 외에 사회적인 차이가 또 있었네요.



이것은 한 외국 은행의 이름과 마크입니다. 남성의 사회적인 역할과 은행의 이미지를 연결시킨 마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을 보여 주는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위의 표에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인 차이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낸 많은 차이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고 우리는 언제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 부산교구 CUM 3월호에 연재한 글 중 일부입니다.

●● 제 73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안내

평일에 워크숍 수료가 어려운 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말 워크숍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최 및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기 간 : 2010년 6월 26(토), 27(일), 7월 3일(토), 4일(일) 총 4일 후 수료
- 장 소 :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선착순 접수이며, 당일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방법 : 전화(02-755-2629),
팩스(02-727-2243), 메일(kteenstar@hotmail.com)

* 교 육 비 : 15만 원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0-998645(예금주: 한국틴스타)

●● 생명과의 화해를 위한 프로그램

- 주관 및 주최 : 한국틴스타
- 대 상 : 낙태 경험이 있는 분
- 일 시 : 2010년 6월 14~16일(2박 3일)

* 선착순 접수이며, 당일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방법 : 전화(02-755-2629),
팩스(02-727-2243), 메일(kteenstar@hotmail.com)

* 2010년 12월까지 매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틴스타 안병옥 선생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전 장려상 수상

2010년 상반기 진행 현장

분류	장 소	담당교사	시작일	지역
학교	백석중학교(중)	고경미, 김수경, 김상근, 정선미, 정해경, 임복규 선생	2010년 3월 23일	서울
	홍대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고)	황윤정 선생	2010년 3월 20일	
	중화고등학교(고)	김기환 선생	2010년 4월 12일	
	세화여자고등학교(고)	이정현 선생	2010년 3월 20일	
	하비에르국제학교(고)	김혜정, 김정성 선생	2010년 3월 8일	인천
	인천가톨릭신학대학교(총)	하정용 신부, 강명주(여성 분반) 선생	2010년 3월 22일	
	청원 양업고등학교(고)	이은숙, 박인규 선생	2010년 3월 26일	
	대구가톨릭대학교(총)	서은주 수녀	2010년 3월 24일	
대구가톨릭대학교 한티영성관(총)	김혜정 선생, 김종용(남성 분반) 신부	2010년 3월 13일	대구	
성당	서울대교구 세검정성당(총)	김혜정 선생	2010년 4월 16일	서울
			2010년 4월 14일	
	서울대교구 청담동성당(총)	배미애 수녀 김혜선 수녀	2010년 5월 14일	
			2010년 5월 20일	
	수원교구 태평동성당(고)	이회정 선생	2010년 4월 10일	경기
	수원교구 명학성당(총)	김명숙 선생	2010년 3월 4일	
	의정부교구 용현동성당(중)	심수연, 서형석, 김울리아, 신새롬, 조수현 선생	2010년 4월 18일	
	의정부교구 용현동성당(고)	하정용 신부, 이은정 선생	2010년 4월 18일	
	인천교구 삼산동성당(고)	이석근, 이정림 선생	2010년 3월 20일	인천
	대구대교구 인평동성당(총)	백민주 선생 도희숙 선생	2010년 4월 16일	대구
2010년 4월 15일				
대구대교구 복지성당(총)	공수득 선생, 김수선 수녀	2010년 3월 27일		
시설	마자렐로센터(고)	이정림 선생	2010년 4월 20일	서울
	신월청소년문화센터(중)	김기환 선생	2010년 4월 1일	
	파랑새지역아동센터(중)	정원배, 최명숙 선생	2010년 3월 12일	

2010년 상반기 종료 현장

분류	장소	담당교사	시작일	종료일	지역
성당	서울대교구 지암동성당(총)	김혜선 수녀, 주설령 선생	2010년 1월 21일	2010년 4월 8일	서울
	서울대교구 삼성동성당(총)	김혜정 선생	2010년 1월 27일	2010년 5월 12일	
	의정부교구 백석동성당(총)	이정현 선생	2010년 3월 9일	2010년 5월 25일	경기
	대구대교구 고산성당(중)	서영예 선생	2010년 1월 9일	2010년 3월 14일	대구
	대구 두산청년회(총)	백민주 선생	2009년 11월 26일	2010년 1월 28일	
시설	홀트아동복지회 아름뜰(미)	강민숙 선생	2010년 2월 5일	2010년 4월 13일	서울
	동방사회복지회 세움누리의 집(미)	강민숙 선생	2010년 2월 11일	2010년 5월 3일	
	인천 새터민지원센터(중)	김희영, 안병욱 선생	2010년 3월 6일	2010년 5월 9일	인천
	안양 마라의 샘(총)	김명숙 선생	2010년 2월 4일	2010년 4월 22일	경기

* 중 : 중학교 프로그램, 고 : 고등학교 프로그램, 총 :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 미 : 미혼모 프로그램, 여 : 여학생 프로그램, 남 : 남학생 프로그램

알림 Notice



☆ 2010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종료 현황

제72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부산

- 주 최 : 부산가톨릭신학대학교
- 기 간 : 2010년 3월 17일 ~ 20일
- 장 소 : 부산가톨릭신학대학교

☆ 2010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안내

제73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본부

- 주 최 : 한국틴스타 본부
- 주 관 : 한국틴스타 본부
- 기 간 : 2010년 6월 26~27일, 7월 3~4일(주말)
- 장 소 :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제74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광주

- 주 최 : 광주대교구 가정사목국
- 주 관 : 한국틴스타 본부
- 기 간 : 2010년 7월 5일 ~ 8일
- 장 소 : 미정

제75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수원

- 주 최 : 수원교구
- 주 관 : 한국틴스타 본부
- 기 간 : 2010년 7월 19일 ~ 22일
- 장 소 : 수원 가톨릭청소년문화원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거나 본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후원통장 : 우리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5-100-998647
 국민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875401-01-517401
 신한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306-01-261337
 외환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611-016668-535

발행일 : 2010년 6월 1일
 발행처 : 한국틴스타
 주 소 :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519호
 전 화 : 02)755-2629

발 행 인 : 배마리진 수녀
 홈페이지 : www.teenstar.or.kr
 E-mail : kteenstar@hotmail.com
 팩 스 : 02)727-2243